

「2015 교육과정」에 기반한 자유학기제의 문법 교육 방향 설정

양영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 논문은 제6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4.22-2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좋은 토론을 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II. '교과' 수업에서의 문법 교육 방향
- III.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듯이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에 따라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에 도입한 것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 학생의 적성과 소질, 미래 설계,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운영, 일제식 지필고사 지양(정영근 외 2014: 4)”을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제도이다.¹⁾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운용하는데,²⁾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영근 외 2014, 2015, 2016).³⁾ 부정적인 시각이 없을

-
- 1) 교육부의 '국정 과제 실천 계획'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2013년 9월에 '연구학교'의 형태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희망학교'를 추가로 받아서 201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2) 적용 학년을 '중1~2'로 한 이유는 '중1~2는 학생들의 신체·정서·인지·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중1~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자신의 꿈·끼를 탐색하고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상급 학년에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며, 자율적인 교육 과정의 편성과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 운영이 용이(교육부, 2015)'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 3) 정영근 외(2015: 169)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은 '학생들 개인의 진로에 대해 사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할

리 없지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바에는 긍정적인 면에 입각점을 두어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문법 교육의 방안을 거칠게나마 마련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보듯이 자유학기는 오전에 교과 수업(1.가)을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1.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자유학기제 교육 과정

가. 교과

나. 자유학기 활동: ㉠ 주제 선택, ㉡ 예술 체육, ㉢ 진로탐색, ㉣ 동아리

여기서는 (1.가)의 과정에 주목하여 「2015 교육과정」에 근거한 문법 내용을 어떻게 교수·학습하며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실행 대상은 「2012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육 받는다는 사실을 연구자도 모르지 않지만 「2015 교육과정」이 과목 간 융합(연계)⁴⁾을 전제로 기획되었으며 문법 교육의 기능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 교육과정」보다 자유학기제와의 연결고리가 더 탄탄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교사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며 학생들이 '자유 학기는 노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한다.

- 4) 사실 융합과 연계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된다.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며 연계는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그러나 현행 자유학기제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본 논의에서도 구별하지 않고 '융합(연계)'라는 기술 형식을 취하여 설명과 기술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한다.

II. 「교과」 수업에서의 문법 교육 방향

우리의 관심 대상인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와 활동형 수업을 강화’하는 ‘협동학습과 토론 수업’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법 영역은 국어과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이러한 교수·학습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 문법 교육이 탐구 학습에 주목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직접 설명식 교수·학습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학생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자유학기제에서의 문법 교수·학습법을 생각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1. 교수·학습: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

「2015 교육과정」은 다음 <표 1>에서 파악되듯이 문법 지식을 탐구하여 언어(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⁵⁾ 이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정영근 외 2016: 18)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학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활용을 중시하는 문법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⁶⁾

5)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2012 교육과정』의 ‘중 1~3학년군’ 문법 교육내용과 비교할 때 명확해진다.

가.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나.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다.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라.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마.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바.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사.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문법의 기능주의는 통상적으로 문법이 국어의 활동 영역(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기반 지식으로 관여하거나 이들과 통합해야 한다는 데에 입각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표 1〉 「2015 교육과정」 '중1~3학년군'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국어의 본질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기호체계로서,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한 국어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 언어 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 · 분석하기 • 분류 · 범주화하기 • 종합 · 설명하기 • 적용 · 검증하기 • 언어생활 성찰하기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의 체계와 특성 •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문장의 짜임 • 담화의 개념과 특성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발음과 표기/ 어휘 사용/ 문장 · 담화의 사용	발음, 표기, 어휘, 문장 · 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 한글의 창제 원리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 사랑/ 국어 의식	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때 국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여하튼 우리의 관심사는 「2015 교육과정」의 위와 같은 특징(연구자가 강조한 부분)을 자유학기제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한 점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간주된다. 즉 ① 학생들이 수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언어에 내재된 규칙과 질서를 찾도록 해야 하고 ② 이렇게 획득한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그러한 지식을 창의성을 배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관점이 주세형(2003, 2014), 신명선(2006), 남가영(2007)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 자유학기제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절차

1) 문법 지식의 내면화

(1) 탐구 학습

문법 교육에서 탐구 학습의 중요성은 이제 당위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것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권경일 2013; 남가영 2008; 이관규 2001; 최선희,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 학습은 ‘단계적 문제 해결을 통한 몰입의 재미, 수평적 교수·학습을 통한 지식 상호작용의 경험, 언어에 대한 입체적 인식의 경험, 잠재적 언어 능력 발현에 의한 자신감 고양(문영은 외 2014)’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탐구 학습의 절차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에 따라 이관규(2001), 최선희(2016), 남가영 외(2009), 최은정 외(2014)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탐구 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있어왔다.⁷⁾ 여기서는 남가영 외(2009)의 ‘관찰 → 분석 → 판단’의 절차를 수용하기로 한다.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로 규정되는 탐구 절차는 과학·사회과에는 적당하지만 국어과에는 적절치 않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입각해서이다. 가설은 “①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② 사회 조사나 연

7) 그동안 구상되었던 탐구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규칙원리 중심: 문제 확인하기 → 자료 탐색하기 → 규칙·원리 발견하기 → 적용·활용하기

적용·활용 중심: 문제 확인하기 → 분석하기 → 판단하기 → 적용하기(최선희, 2016)

(나) 이해(문제 확인 - 지식 활성화) → 분석(자료 분석, 가설 수립, 반환 형성, 가설 수정, 규칙 도출) → 해결(규칙 적용, 검토, 결과 도출)(최은정 외, 2014)

(다)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설 검증 및 결론(이관규, 2001)

구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표준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는, ‘연역적 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법은 ‘언어생활의 관습, 다양한 국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끌어 낸 것(최선희 2016: 426)’이어서 연역적 절차와 맞지 않는바,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다양한 언어 현상을 관찰·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과정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⁸⁾ 그리고 그 과정을 토론(의)으로 진행할 때,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학생 참여 수업이 형성되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모든 내용을 탐구 학습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문법 시간에 학생들에게 탐구 과정 자체를 경험하고 즐기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교육 내용은 직접 설명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나 ‘국어의 변천’과 같은 내용이 그러하다. 그러면 문법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하브루타 학습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풀어 보고자 한다. 하브루타는 ‘아랍어로 우정(friendship), 교우(companionship) 등을 의미하며,⁹⁾ 보통 2명이 짝을 지어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한동균 외, 2015: 88)’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을 ‘하브루타 학습’이라 칭한다. 수업 모형에는 다음 <표 2>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한동균 외 2015: 92).

8) 이러한 탐구 절차는 김광해(1992)에서 도입되어 6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명시된바, 과학과 사회과의 탐구 모형을 원용한 것으로 문법 탐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최선희(2016), 최은정(2014), 박형우(2009), 권경일(2014)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9) 이러한 의미를 지닌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장소인 베이트 미드라쉬(beit midrash, 연구의 집)에서 유대교 텍스트인 토라와 탈무드를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연구하게 되면서(Kent 2013, 김보경, 2015: 82 재인용)’ 학습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2〉 하브루타 수업 모형

하브루타 수업 모형	단계
질문 중심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모둠 토론 → 발표 → 쉬우르
논쟁 중심 하브루타	논제 조사하기 → 짝 논쟁 → 모둠 논쟁 → 발표 → 쉬우르
비교 중심 하브루타	비교 대상 정하기 → 조사하고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모둠 토론 → 발표 → 쉬우르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내용 공부하기 → 친구 가르치기 → 배우면서 질문하기 → 입장 바꾸기 → 이해 못한 내용 질문하기 → 쉬우르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 짝과 문제 다듬기 → 모둠과 문제 다듬기 → 문제 발표 → 쉬우르

〈표 2〉에서 확인되다시피 하브루타 수업의 기본 방식은 ‘친구와 함께’이다. 방식이 이러하므로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법으로 이해된다. 〈표 2〉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연구자가 문법 교육 시간에 시도한 모형으로, ‘질문 중심 하브루타’는 학생 개개인이 먼저 해당 수업 시간에 알아야 할 문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 후에, 거기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짝에게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래도 풀지 못한 의문은 3-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고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는 자신이 이해한 문법을 먼저 친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모둠에서 다시 설명해 봄으로써 문법에 대한 지식을 견고히 하는 방식이며,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는 시험 문제 등을 만들어서 짝과 함께 다듬은 후에 다시 모둠에서 다듬어 보면서 자신의 문법 지식을 폭넓고 견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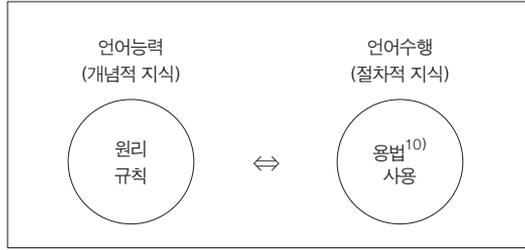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은 교사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를 하는 ‘쉬우르’로 마감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교사는 문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스스로 특정 규칙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한다. 앞서 살핀 탐구 수업이 언어 현상을 관찰하여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면, 음영으로 처리한 하브루타 수업은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문법 지식이 있고, 그것

을 짝·모듬과 함께 협력(질문하기·가르치기·문제 만들기)하여 깊이 이해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탐구 과정보다 이해가 우선시되는 문법 지식을 가르칠 경우에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고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생 상호 간, 학생과 교사 간에 소통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탐구 학습과 하브루타 학습을 정확히 구별할 이유는 없다. 언어 현상의 원리나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면 단독으로 탐구 학습을 하고, 반면에 문법 규칙을 학습하여 내면화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면 되지만 학습 내용에 따라서는 두 학습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문법 교육은 탐구학습과 하브루타 학습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응할 만한 방안을 타진해 보았다는 데에 만족하기로 하자.

2) 문법 지식 사용

위와 같은 교수·학습법으로 문법 지식을 내면화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언어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문법 교육의 효용성은 높아진다. 문법 교육이 국어 활동 영역의 기반 지식으로 관여한다는 논리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표 1〉 참조). 그렇다면 문법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새삼 제기된다. ‘문법 사용하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에도 이렇다 할 정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까닭이다. 우형식(2009: 229)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문법을 분류하였다.



〈그림 2〉 규칙 문법과 사용 문법

“언어 능력은 개념적 지식으로서의 원리와 규칙에 관련되고, 언어 수행은 절차적 지식¹¹⁾으로서 용법과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리와 규칙을 ‘규칙으로서의 문법’으로 용법과 사용의 문제를 ‘사용으로서의 문법’으로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상호 교섭적임이 위의 그림에서 파악된다. 즉 개념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에 관여하고 절차적 지식은 개념적 지식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사용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우형식(2009: 230)의 설명까지를 고려하면, 그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되어지는 개념적 지식(원리·규칙)’으로 규정되고, ‘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념적 지식(원리·규칙)을 잘 선택하는 행위’로 재규정된다. 문법 교육이 문

10) 우형식(2009: 250-251)에서 구별한 용법과 사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법(usage)

- ㉠ 언어 체계 안에서의 한 요소로서 언어 항목의 사용 방법
- ㉡ 언어 체계의 명세화로서 단어와 문장들을 열거하는 방법
- ㉢ 그 자체로는 의사소통 행위에서 유용성이 거의 없고 적절한 사용의 절차로 보완되어야 함

(2) 사용(use)

- ㉠ 의사소통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능
- ㉡ 정상적인 의사소통적 목적을 위해 그 언어 체계가 실현되는 현상
- ㉢ 사용은 용법을 포함하지만 용법은 사용을 포함하지 못함

11) 절차적 지식은 언어 사용자들이 주어진 맥락에서 자동적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식을 뜻한다(우형식 2009, 김지홍 역 2002: 71-4 재인용)

〈표 3〉 문법 사용하기의 하브루타

하브루타 수업 모형	단계
질문 중심 하브루타	글 쓰기 →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모둠 토론 → 발표 → 쉬우르
논쟁 중심 하브루타	생각 정리하기 → 짝 논쟁 → 모둠 논쟁 → 발표 → 쉬우르

장 단위를 벗어나 맥락과 텍스트에 주목하면서 ‘담화 문법, 장르 문법’ 등을 생성시킨 이윽도 기실 ‘문법 사용하기’를 중시한 경향일 터이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유학기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법 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두기로 하자. ‘문법 사용하기’가 ‘사용’의 문제로 귀결된다면 문법은 의사소통의 방법과 직결되고,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쓰기’와 ‘말하기’ 혹은 ‘읽기’와 ‘듣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쓰고 말하게 하거나, 역으로 생각을 먼저 말하고 쓰게 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쓰기’는 개인적인 실습에 해당하고 ‘말하기’는 발표나 토론을 통한 협동 학습에 해당한다. 학생이 쓴 글을 다음과 같은 하브루타 수업으로 서로 피드백을 하거나 논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질문 중심 하브루타’ 방식을 취하려면, 먼저 학생 개인이 글을 쓰고 그 글을 짝과 서로 바꿔 읽어서, 짝이 규칙을 잘못 사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비문 등을 ‘질문 형식’으로 토론을 하고, 다시 모둠 토론을 하여 서로 피드백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학생 개인들이 자신의 글을 교정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반면 ‘논쟁 중심 하브루타’ 방식을 취하려면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것을 짝과 이야기(논쟁)한 후에, 생각을 다듬어서 다시 모둠 토론을 하여 피드백 받은 결과를 글로 써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때 쓰거나 말하면서 자신이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못 사용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등을 분석·반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법’ 수업이 아니라 ‘글쓰기’나 ‘말하기’ 수업이 될 확률이 높은 까닭이다.

이렇게 하여 문법 사용 능력이 길러지면 창의성을 신장시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이므로 본 논의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김은성(2004: 187)은 “국어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창의성은 언어적 창의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일반성이 강한 창의성이 아니라 국어과 창의성”이라 규정하고, 국어과 창의성은 “국어를 부려 써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 사고 능력, 태도 등이 특정한 환경에서 새롭고 적절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적 특성”이라 정의하였다. 요컨대 국어 교육에서의 창의성을 ‘창의적인 국어 능력’으로 간주한 것이다.¹²⁾ 이를 문법 사용하기와 결부시키면, ‘창의적인 문법 사용의 능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문법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은 무엇일까. 연구자의 공부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문자학’ 시간에 시도한 대로라면 문법을 창의성 신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따름이다. 이에 대한 사유와 이론 보강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3) 수업의 실제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연구자는 본 논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자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업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탐구학습과 하브루타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향찰과 이두’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둘째 향찰과 이두가 ‘후대에 해독을 바라는 기호’ 체계가 아니라 당

12)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온바, 제민경·구본관(2013: 316), 신명선(2009)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시 언중들의 필요에 의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사용하기 위한 기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셋째 문자를 창의성 신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최소한 ‘향찰과 이두’의 수업을 ‘재미있다’로 판정하였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짚막하게 정리하여 문법 교육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이기로 한다.

(1) 문법 지식의 내면화

이 과정에서는 ‘탐구 학습’과 ‘질문 중심 ·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을 병행하였다. 즉 다음처럼 ‘처용가’ 원문과 해석을 제시하고서, 학생 개인에게 ①의 사용 원리를 찾아보도록 한 후, 짝과 질문하는 형식을 통하여 서로 의문점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은 모둠 토론의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자료 1〉 처용가

① 東京明期月良 入良沙寢矣見昆	夜入伊遊行如可 脚鳥伊四是良羅 …
② 시를 볼기 드러 드러샤 자리보곤	밤드리 노니다가 가락리 네히어라 (양주동)
③ 동경 볼기 드러라 드러샤 자리 보곤	밤드리 노니다가 가로리 네히러라 (김원진)
④ 동경 밝은 달에 들어 자리를 보니	밤들이 노니다가 다리가 넷이러라

여기서 학생들은 ‘실사’는 훈독을, ‘허사’는 음독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찾으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②, ③의 허사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쉬우르 과정에서 한자 고어를 어떻게 재구하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서 비롯한 차이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먼저 ‘훈독 · 음독’이라는 용어보다 ‘훈차 · 음차’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훈독 · 음

독'의 개념은 기록된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형성된 '결과론적인 태도'이지만 '훈자·음차'는 한자로써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형성된 '사용주의 태도'임을 학생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2) 문법 지식의 사용

위와 같이 강조한 이유는 '규칙'이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중들의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위해 형성된 일종의 규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문법은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지 지배받기 위한 규칙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자신의 생각을 향찰과 이두,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짝의 것을 읽고 서로 다듬어 준 후, 모듬 토의를 하여서 잘된 작품을 선택하여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자료 2>가 바로 이렇게 형성된 향찰과 이두 표기이다.

<자료 2> 학생들의 향찰과 이두식 표기

<p>1.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p> <p>① 향찰</p> <p>歷夜恚 雪理 貯理 露內 路理浪 田理浪 滌限多古 蓋語給 衾人家保茶 然基恚 滌雲 冬恚滿 露支</p> <p>② 향찰(알파벳)</p> <p>last nightae snow e slowly came road irang field irang cold handago covers blanket ingabwa so cold winteraeman comeji</p> <p>③ 이두(알파벳)</p> <p>last night snow slowly came road and field cold feeling covering blanket like so that cold winter it comes autiful flower tooth be rim you peel</p> <p>2.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일게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p> <p style="text-align: right;">〈사랑스런 추억〉 윤동주</p>

① 향찰

今日道我隱誰乙待良停車場近雲原愛徐越乙開於。
亞亞,少隱久彼愛餘良有良羅。

〈愛水良雲 追憶〉,尹東柱

② 향찰(알파벳)

Todaydoe ineun whoreul waitreu bus stop nearwoon hilleseo
hoverilgeda.

Ohoh, youngeun long time thereeh remainah beuhra.

③ 이두(알파벳)

Today i whom wait bus stop near hill hover.

Ohoh, young long time there remain be.

위의 자료는 짝과 서로 수정한 내용을 다시 모둠별로 검토한 후에, 가장 잘된 내용을 선정하여 모둠 원들이 함께 수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전체 발표회를 가진 후, 학생들이 잘된 모둠을 선정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표기'가 무엇인가, 즉 표기는 '해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임을 깨닫게 되며, '개인 > 짝 > 모둠 > 전체'로 확산되는 토론(대화) 방식으로써 표기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위의 표기 방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경험을 한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는 모든 기호를 동원하여 표기해 보라는 주문을 하여 다음의 <자료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료 3> 학생들의 표기 방식

1. 100  의  (100개의 어묵.)

2. Together可 No面, Nothing道 No多.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3. 4는 犬 4는 犬 In 2 Ya.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4. 無 road 力 , ㄴ ㄱ ㅈ ? % (무기력해, 너도? 응.)

5. 70 50엄50엄 1ㄴ 거쵸. (일은 쉬엄쉬엄 하는 거쵸)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렵게 생각하였던 ‘훈차(訓借)’를 자신들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신라인들의 문자 생활을 이해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문자학 시간에 ‘무엇인가 창의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뿌듯하고 재미있으며 친구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구자는 표기라는 문법 요소를 도구 삼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즐거웠다’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문법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첫걸음으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국어를 부러 써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 사고 능력, 태도 등이 특정한 환경에서 새롭게 적절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적 특성(김은성, 2004)’이 창의성이라면 위와 같은 경험은 분명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자를 포함한 기호를 부러 써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2. 교육 과정: 교과 간 융합(연계)

자유학기제 교과 수업의 또 다른 추진 방향은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특성에 맞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교육부, 2015: 16)’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 학교에서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주지하는 대로 ‘융합’을 전면에서 내세운 「2015 교육과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개정을 모색하였다. “하나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핵심역량¹³⁾ 반영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분과적 교육과정을 극복하여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는 창의 융합

13) 여기에는 ‘지적 도구 활용(Using tools interactivel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 행동(Acting autonomously)’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정영근 외 2016: 18)

본 논의의 관점에서는, 문법 교육은 어떤 과목과 어떻게 융합(연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의 핵심 개념을 살피고 다른 모든 교과와의 융합(연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데, 연구자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여유도 없다. 이는 다른 기회에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을 기약하고 여기서는 「자유학기제 보고서」에 제시된 융합(연계) 수업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타진해 보는 데에 만족하기로 한다.

1) 학습 내용 간의 유기적 융합

교과 간 융합(연계)이 형식에 그쳐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조사한 사례의 대부분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교과들이 낱낱이 모여 있다는 인상을 거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료 4〉는 주제별 융합 수업의 한 사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주제 아래 ‘국어·역사·과학’ 교과를 융합한 방식으

〈자료 4〉 주제별 교과 간 융합 수업 사례(교육부, 2015: 16)

주제	5월 가정의 달: 사랑합니다, 사랑한다(자유학기제로 사랑 UP!)
교과	교과별 학습 내용 및 방법
국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 '아버지'를 감상한 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1. 싸이의 '아버지'를 감상하고 가사의 의미 생각하기 2. 조별로 '아버지' 가사를 보며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찾아보기
역사	-가족 역사(연표) 만들기 1. 가족 역사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일기, 가족사진, 물건 등)를 모으고 연표 형태로 정리 2. 가족 역사를 발표하고 나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소감 작성
과학	-당신은 부모님의 말에 대하여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1. 여러 가지 소리(음악소리, 웃음소리, 물체 끄는 소리)에 따른 소리의 3요소 구하기 2. 음악을 배경으로 짧은 메시지를 녹음하여 부모님께 전송하기

로, 국어 교과에서는 ‘음운 변동’이 학습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5월을 맞아 시의 적절한 주제를 설정하여 여러 교과를 융합한 점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런 융합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굳이 다음에 소개한 ‘아버지’의 가사로만 음운 변동을 이해할 만한 당위성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5〉 ‘아버지 가사’의 일부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을 머리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애들이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 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애들이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위의 가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아닌 바에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연계시키는 편이 <자료 4>의 학습 내용으로 설정한 ‘가사의 의미 생각하기’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노래 ‘가사’의 담화 특성이 어떤 문법 장치로 구현되며, 일반 ‘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편이 애초에 의도했던 융합 수업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융합이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면 위의 방식은 융합이 아니라 단순한 나열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물론 자유학기제에서도 융합 외에 ‘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의 취지가 ‘교과 및 학습 주제 간 융합 수업을 실시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위와 같은 융합 방식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 간의 융합(연계)을 억지스럽게 진행시키기보다 두 교과만을 융합시키더라도 학습 내용 간의 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교과 내의 영역 간 융합에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7 교육과정」에서 영역 간 통합을 시도

한 이후 반성과 수정을 계속 하고 있는 바에는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다소 인위적이고 억지스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융합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비단 교과 간 융합을 통해서만 배양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가 ‘교과 간의 융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과목의 연계보다 학습 내용 간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교과 내의 영역 간 융합에도 관심을 보일 때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융합의 취지는 제대로 구현되리라는 의미이다.

2) 학습 내용의 융합 가능성 모색

이제 문법이 타 과목의 어떤 학습 내용과 융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문법의 모든 학습 내용을 범위로 삼아야 하지만 우선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1~3학년군’의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자음이나 모음 등과 같은 음운 체계를 알고 특성을 이해하려면 호흡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파열이나 마찰 등과 같은 발음 방법은 호흡 운동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9국 04-02’와 ‘9과 12-04’는 융합이 가능한 교육 내용이다. 또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9국 04-03’과 ‘9음 01-05’와의 융합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소 억지스럽게 생각되는 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문법 영역이 타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되기도 한다. 문법 영역이 국어의 다른 영역(읽기, 쓰기, 말하기)에 비하여 도구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다른 교과에서의 활용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다른 영역이 타 교과와 융합할 가능성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이 비단 국어 교과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닐 터이다. 사회나 음악, 과학 등의 교과가 다른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학습 내용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을

〈표 4〉 문법 교육과 타 교과의 융합

문법		사회		과학		음악	
9국 04- 01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						
9국 04- 02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9과 12- 04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9국 04- 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9음 01- 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9국 04- 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9국 04- 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9국 04- 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9국 04- 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9국 04- 08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6사 03- 05	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성계,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의 업적을 통해 조선 전기 정치와 민족문화의 발전상을 탐색한다.				
9국 04- 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6사 08- 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한 문법 교육의 역할은 <표 4>에서 보이는 빈칸을 채우는 일일 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문법 영역은 융합보다는 단독 단원으로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학습으로써 학생들의 협력 학습을 유도하고 자기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한다.

III. 맺음말

본 논의는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문법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교수·학습법’과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곧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문법 교육은 어떠한가라는 물음과 문법이 타 교과와 융합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거칠게나마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는 교수·학습법으로 ‘탐구학습’과 ‘하브루타 학습’을 제안하였다. 탐구학습은 문법의 학습법으로 이미 정착되었지만, 가설 설정과 검증 등의 과정이 문법 교육에 맞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찰 - 분석 -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언어 현상을 관찰·분석하여 내재된 규칙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과정만으로도 언어의 탐구 절차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둠 토론을 하면서 협력 학습을 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하브루타 학습은 ‘친구와 함께 협력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짝에게 질문하거나, 짝을 가르치거나, 짝과 함께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법 지식을 내면화 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한 문법 지식을 언어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실습과 하브루타 수업 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짝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에 다시 모둠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작업을 거쳐 개인별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법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문법을 창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타 교과와의 융합(연계)을 중시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와 교과를 융합(연계)하는 방식보다 학습 내용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하나의 주제 아래 몇 개의 교과가 병렬적으로 나열해 있는 방식이 주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문법이 타 교과와 융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의에서는 억지스런 교과 간의 융합(연계)보다 같은 교과 내의 융합을 시도하기를 제안하였다. 융합의 기본 취지가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면, 굳이 타 교과간의 다소 억지스러운 융합보다는 같은 교과 내에서의 융합을 시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 본 논문은 2017. 5. 13.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권경일(2013), 「학교 문법의 내용 선정과 기술에 대한 제안」, 『문법 교육』 19, 155-182,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선청어문』 20(1), 81-10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보경(2016),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21(1), 81-115, 기독교학문연구회.
- 김은성(2004),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기본 개념」, 『국어교육』 113, 175-202, 한국어교육학회.
- 김은성(2005), 「비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323-35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은성(2013), 「비판적 언어인식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6, 141-181, 국어교육학회.
- 남가영 외(2009), 「문법 탐구 과정에 대한 어휘계량적 접근」, 『어문연구』 37, 359-38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문영은 외(2014), 「문법 탐구 과제의 해결 경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사례 연구」, 『문법 교육』 21, 27-64, 한국문법 교육학회.
- 박형우(2009), 「문법 교육과 관련된 탐구 학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82, 145-170, 한국국어교육학회.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245-278, 한국어학회.
- 심영택(2013),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6, 47-75, 국어교육학회.
- 우형식(2009), 「규칙으로서의 문법과 사용으로서의 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4, 227-256, 연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관규(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 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 31-63, 한국어교육학회.
- 정영근 외(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 외(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영근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코딩 체계 구축을 통한 교과 간 연계·융합 학습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세형(2014), 「통합적 문법 교육의 전제와 학문론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34, 57-8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최미숙 외(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선희(2016), 「문법 탐구 학습 모형의 비판적 고찰」, 419-451, 『새국어교육』 109.
- 최은정 외(2014), 「PBG를 이용한 문법 탐구 과제 해결 과정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49(2), 551-581, 국어교육학회.
- 한동균 외(2015), 「하브루타 학습법에 기반한 사회과 수업의 설계 및 적용 가능성 모색」, 『사회과 수업연구』 3(2), 85-108,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5 교육과정」에 기반한 자유학기제의 문법 교육 방향 설정

양영희

본 논의는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문법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을 ‘교수·학습법’과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문법은 원리와 규칙을 내면화 한 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개진하였다.

먼저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는 교수·학습법으로 ‘탐구학습’과 ‘하브루타 학습’을 제언하였다. 탐구학습은 문법의 학습법으로 이미 정착되었지만, 가설 설정과 검증 등의 과정이 문법 교육에는 맞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찰-분석-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둠 토론을 하면서 협력 학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비하여 하브루타 학습은 ‘친구와 함께 협력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짝에게 질문하거나, 짝을 가르치거나, 짝과 함께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면서 상호 협력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하였다.

타 교과와의 융합(연계)을 중시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억지스런 교과 간의 융합(연계)보다 같은 교과 내의 융합을 시도하기를 제언하였다. 융합의 기본 취지가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면, 굳이 타 교과간의 다소 억지스러운 융합보다 같은 교과 내에서의 융합을 시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핵심어 자유학기제, 문법 교육, 탐구학습, 하브루타 학습, 학생 활동, 융합(연계)

ABSTRACT

Directions of Grammar Education for Free-learning Semester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Yang Younghe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future directions of grammar education for the Free-learning Semester in terms of learning and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To this end, it is suggested that grammar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use of grammar after internalizing the principles and rules.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quiry learning and Havruta learning was suggested a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nternalize grammar knowledge. Inquiry learning has been widely accepted as a grammar education method, it is also indicated that procedures such as hypothesis setting and testing are appropriate for grammar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its procedures be streamlined as three steps of observation – analyzing – judgement since the procedure of observing and analyzing any language phenomenon and judging its internalized rules can be considered as sufficient. Throughout the procedures, students are ask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group discussions and cooperative learning whereas in Havruta learning, students are asked to participate in pair conversations cooperatively in student-centered ways. In this method, learners internalize grammatical knowledge while they ask questions, have conversations with their pairs, and make questions together.

To achieve the goal of Free-learning Semester which focuses on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subjects, integration within a subject was suggested rather than across different subjects. Since the fundamental purpose of convergence is on the enhancement of integration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it seems more efficient to

attempt to integrate within the same subject rather than try to connect different subjects in an awkward way.

KEYWORDS Free-learning Semester, Grammar Education, Inquiry Learning, Havruta Learning, Student Activity, Convergence (Integration)